

# 내 담 편 우 홍 선 의 리 의 결 백 하 다

강 순 희

\*강순희님은 1974년 민청학련의 배후로 조작된 소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관련되어 고문과 조작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975년 4월 9일 유명을 달리하신 우홍선님의 미망인이다. 이  
글은 1974년 당시 우홍선님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강순희님이  
여러 집회에서 호소한 내용이다.

##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다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하였다는 세칭 인혁당 관계 피고 21명 중 1심, 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우홍선의 처 강순희입니다.

남편 우홍선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세칭 인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시찰 인물로 10년 동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그 오랜 세월 감시를 받아오며 살아왔습니다.

작년 5월 2일 아침, 서대문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골드스탬프 회사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남편 우홍선을 정보원이 연행하여 갔습니다. 즉시 정보원 2명이 집으로 찾아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 이상이 없자 그냥 돌아가려다 방바닥에 놓여 있는 라디오를 압수하여 갔습니다.

그 라디오는 새로 산 것으로 그 날 아침 처음으로 큰딸 아이와 남편 우홍선과 저 셋이서 FM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다 놔둔, 다이얼이 FM에 돌려진 그대로 압수하여 갔습니다. 이 라디오가 오늘날 남편 우홍선을 공산주의자이며 정부 전복의 모의를 하였다고 하여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사형을 선고한 유일한 증거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 세칭 인혁당 사건이란 각 신문과 『해방 20년』이란 책에도 생생히 수록되어 있듯이 조작이었다는 것은 온 세상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0년 전 세칭 인혁당 사건의 조

작을 둘러싸고 한국인권옹호협회에서 인혁당 사건의 무료 변호를 맡기로 결정을 보아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내막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 조사단을 구성하고 몇 차례에 걸쳐 서울교도소에 출장하여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을 듣고 린치 범인들을 철저히 규명하여 고발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공안부 검사들의 항명 사건으로, 부정을 가리는 데는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정보로는 으뜸가게 파고드는 성격을 가진 공안부의 당당한 실력 검사가 기소가치가 없다고 단정, 관련 피의자들에 관한 불기소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층은 담당 검사들의 불기소 의견을 묵살하고 기소하도록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공안부 검사 전원은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대하여 검사의 양심상 기소장에 서명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에 구류 만료일인 9월 5일 숙직검사 정명래로 하여금 기소하게 한 사건입니다. 공안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세 실력 검사는 사표를 제출했으며, 급기야는 정치적 쇼라고 학생 데모의 주동자를 때려잡기 위해 조작했다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의 재판문제를 둘러싸고 물의를 일으켰으며, 당시 세칭 인혁당 사건 피고들은 발가벗기고 고문당했으며, 물전기 고문으로 살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피를 토하고, 몇번씩 죽었다 살아나는 차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지옥을 연상케 하는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한옥신 검사는 조사 결과 피고들이 고문당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오늘날까지 그 린치범들을 처벌하지 못한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밝혀둘 것은 10년전 세칭 인혁당 사건을 고문으로 조작했던 정보원들이 오늘 또다시 인혁당 재건을 조작하기 위하여 고문으로 강압수사한 정보원들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칭 인혁당이 조작이란 것은 이제는 이 세상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면, 얼마나 정보원들이 돌머리이면 인혁당을 재탕하는 과오를 범하였겠습니까?

박현식 재판장 이하 여러 재판관, 검사, 변호사, 피고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참석한 군사법정에서 피고 우홍선은 검사의 신문에 “이수병과 다방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나 정부 전복의 모의를 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이북방송을 들은 일도 없습니다” 하고 진술하고 “처음 중정에서 무조건 무엇이 있나 없나 하고 고문을 할 때는 그래도 참을만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나를 요시찰 인물로 만들어놓고, 어항에 놓고 있는 물고기를 들여다보듯이 감시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했다고 이러느냐고 하니 수사관들도 이를 수궁하고 며칠을 그대로 놔두더니 며칠 전 각본을 가지고 와서 그 각본에 끼워 맞추어 간첩으로 몰려고 고문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는 3층에서 떨어져 죽고 싶은 심정이었고, 두번만 더 돌리면(전기고문 기구) 심장이 파열되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때에 고문을 하는 수사관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김종길 변호사 “피고 우홍선은 대한민국의 육군 대위까지 한

사람이 어찌하여 검사 앞에서 허위 기소사실에 시인을 하였소?

우홍선 “나는 분명히 검사 앞에서 시인하지 않았습니니다. 검사와 서기가 점심식사를 하러 간다며 자리를 피하여 주니 수사관이 달려들어 강제로 손을 끌어다 지장을 찍게 하고, 이튿날도 강제로 수사관과 합작으로 썼기 때문에 ‘우홍선’이라고 동그라미를 쓸 때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피고 우홍선은 분함을 억제하지 못하는 감정으로 폭로하였으나, 이때의 검사는 탄 때와는 대조적으로 한마디의 반론도 제지도 못하고 묵묵히 있었습니다. 아마 실오라기같은 양심이 순간 작용했음인지 피고 우홍선이 군사법정에서 부당한 고문과 부당하게 인격이 유린당하였음을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론이 없었습니다.

김종길 변호사 “피고 우홍선은 만약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면 일차 사건이 발표되었을 때 몸을 피했을 것 아닙니까?”

우홍선 “예, 그렇습니다. 추호라도 관련이 있었다면 절대로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발표를 보고도 태연히 직장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김종길 변호사 “피고 우홍선의 처는 월남가족이라고 하는데...”

우홍선 “예, 그렇습니다. 자유를 찾아 이곳에 온 가족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같은 신분의 대한민국의 군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이어서 뒤집어 보이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남편 우홍선이 자신의 무고함을 변명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인간을 궁지로 끌고가는 정보원들의 과잉충성의 처사가 한없이 야속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인은 부하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같이 사랑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을진대 조국이 위태로울 때 목숨결고 당시 ‘오분간 소위’로 싸운 용사를 군법정이 이렇게까지 억지로 공산주의자로 만들든 사실을 기정화하여 사형을 선고해야 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홍선 “그 동안 서울에 있지도 않은 무기징역 피고 김한덕을 수차 다방에서 만나 포섭했다는 내용의 조작된 기소문에는 ‘김한덕을 포섭하고’를 ‘포섭하지 못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치사하게 꾸며졌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 전에 검사가 소리를 질러 이를 제지하였습니다.

문호철 검사 “(피고 이수병에게) 당신을 지도할 만한 혁신계 인사로 서도원, 도예종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이수병 “(굳이 대답하라면 한다는 거짓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호철 검사 “우홍선이도 당신을 지도할 만하지?”

이수병 “아니오. 우홍선은...”

문호철 검사 “연령으로 말하는게 아니야!”

여러분! 군사법정에서 문호철 검사는 분명히 피고들을 혁신계 인사라고 말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김종길 변호사 “피고 우홍선은 혁신계 노선이란 대한민국에 현존하고 있는 통일당같은 노선을 말합니까?”

우홍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홍선 최후진술 “결코 나는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 중의 하나로, 6·25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고, 종합 제 31기생으로 최전선에서 피와 살을 바쳐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흉탄에 부상으로 피를 많이 흘려 그후 건강에도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에 심문을 받으러 갈 때 내가 탄 차가 교통위반을 하고 마구 달렸습니다. 현재 나는 횡단보도의 파란불을 보고 건너가다가 중정의 이같은 교통위반 차량에 사고를 당하는 기분입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옛 부하의 어려운 처지를 통찰하여 바르게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변호사 변론 “10년 전 세칭 인혁당 사건은 황계룡 변호사의 자세한 변론이 있었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피고 우홍선이 북한으로 보냈다는 김상한은 동아대학 교수로 나(김종

길 변호사)와 절친한 사이였으며, 피고 우홍선이 보낸 것이 아니라 미군 CIA에서 김상한을 북한으로 보냈으며, 김배영 역시 피고 우홍선이 보낸 것이 아니라 당국의 수배에 피할 곳이 없어 일본에 있는 구둣방을 하는 자기 형(김배영의 형)의 집으로 피했으나 그곳에도 있을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북한으로 갔으며, 김배영은 '대한민국에 있을 때도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으며, 또한 일본에 있을 때도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다'고 하며, 북한으로 가서 비로소 그때까지 김배영이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공산주의자가 되었다고 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아 처형당하였습니다. 김배영 사건은 본인(김종길 변호사)이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김종길 변호사는, 김상한과 김배영은 피고 우홍선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순전히 조작된 것임을 밝혀서 변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증인이기도 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년 동안이나 요시찰 인물로 감시를 받아오면서도 김배영 사건이 그 동안에 있었을 것은 물론인데, 한번도 피고 우홍선은 수사기관의 심문을 받아 본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 점만으로도 정보부원 자신들도 피고 우홍선의 무고함을 알면서도 고의로 조작하여 정치 제물로 삼으려 함이 증명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군사법정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피고 우홍선에게, 이 중요한 대목인 간첩을 북한으로 보냈다는 공소 사실을 한마디도 심문하지 않았고, 공고 사실에만 있는 것을 김종길 변호사가 변호 및 사실상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 고 우홍선님의 생전 모습

그 지독한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검사들도 거짓 공소장으로 꾸밀 수는 있었으나, 너무 거짓이 어마어마하여 차마 법정에서 심문을 하는 연극을 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 재판과정을 지켜본 김종길 변호사님이나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인하게도 군사법정은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2심에서는 변호사 변론만으로 또다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종길 변호사의 2심 변론 “피고 우홍선의 6명의 변론을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칩니다. 온 국민이 하나같이 총화를 이루어야 할 이 마당에 <암흑가의 두 사람>이란 불란서 영화에서와같이 수사관의 과잉충성으로 부당하게 죄인을 만들어 처벌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되며, 이중에는 잘 아는 친구도 있으며, 모두 선량하고 재능있는 인재들로써 공산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만약 피고들이 공산주의자라면 변호사직을 내놓아도 좋습니다. 옛말에

초록은 동색이라고 혁신계 인사들을 공산주의자로 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계 각처에 공산주의와 혁신노선은 엄연히 구별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에도 혁신노선의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진보적인, 조금만 혁신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공산주의자로 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초록은 결코 동색이 아닙니다.”

남편 우홍선은 일찍이 지금은 전사하고 없는 가장 친근했던 친구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으므로 그 영향을 받아 자기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하였으며, 그 어머니 또한 장로교회 집사로 믿음이 착실하며, 저의 친정 또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피고 우홍선은 절대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수사관들이 과잉충성으로 무고한 남편 우홍선을 정치 제물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 우홍선의 기소장이 고문에 의하여 수사관의 의도대로 적당히 그 비위에 맞도록 멋대로 만들어진 내용이란 것은 서울구치소에서 1974년 5월 6일 발행한 처방전에서도 명백합니다. 즉, 5월 2일 건강한 몸으로 직장에서 일하다 연행된 남편 우홍선이 불과 4일만인 5월 6일 상처로 인하여 하지를 쓸 수 없어 누워도 좋다는 ‘와허증’으로 그 경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 우홍선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들도 분명히 부당하게 고문당했으며 인권이 유린되었습니다.

인권회복은 한 사람의 인권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가장 직면한 민주회복도 한 사람의 인권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

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덟 사람의 생명을 에워싸고 본인들은 물론 칠순이 넘은 노부모와 어린 자식들과 아내들, 그리고 많은 친지들은 초죽음이 다 되어 초조히 다가오는 시각을 헤이고 있습니다. 이 절박하고 숨막히는 심정을 어찌 이 무딘 입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의 법관들도 1심, 2심의 공판 기록이 거짓이 없이 바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 여덟 사람의 생명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과 법의 정신을 바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 가족들과 같이, 아니 더 이상으로 몹시 두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법원 법관들이 여덟 사람의 생명을 심판하고 있으나, 이 법관들에 대한 심판은 역사가 할 것이니 이 어찌 두렵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덟 사람의 생명을 지켜 이 생명이 살아 악동하는 위에 민주회복의 깃발을 올려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보부 6국에 강제연행 48시간

1975년 1월 9일 목요일 명동대성당에서 인권과 민주회복을 위한 기도회에서 호소문(위 내용)을 낭독한 것이 문제가 되어 1월 11일 토요일 오후부터 서부서의 담당형사들이 수 차례에 걸쳐 정보부로 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영장을 가지고 와서 데리고 가시오. 영장없이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 내 있는 힘을 다해 거부하다 힘이 모자라 끌려가면 갔지 내 발로는 절대로 걸어가지 않겠소!” 하고 강경히 거부하다가

1월 13일 밤 10시 경 형사 4명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었습니다.

양팔이 붙들려 끌려가는 엄마의 다리를 붙들고 “아빠도 잡아 가고 엄마마저 잡아가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고 해요”하고 아이들은 울부짖었으며, 저는 “동네 사람들이여! 정보부원들이 죄없는 사람 강제로 납치해가는 것 구경 좀 하시오!”하고 울부짖으며 검은 차에 강제 연행되어 남산에 있는 정보부 6국이라는, 정보부원 자신들도 인정하며 말하는 그 악명높은 곳에 끌려갔습니다.

정보부에 가서 남편 우홍선의 구명운동 경위를 조사받았으며, 중요한 것은 인혁당 사건을 조작이라고 발언한 것이었습니다.

수사관 “무슨 증거로 인혁당을 조작했다고 하오?”

나의 답변 “군법정에서 황계룡 변호사가, 10년 전 세칭 인혁당 사건은 기소가치가 없다고 당시 공안부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검사의 항명사건이 있었던 사건으로 『해방 20년』이란 책을 증거물로 제시했으며, 대법원 상고시는 10년 전 신문을 첨부한 것을 들며 나 자신도 숙대 도서관에서 열람 허가를 얻어 10년 전 경향신문의 기사를 복사하여 본 내용을 들고 인혁당은 조작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사표를 낸 검사가 있느냐?”

답변 “선생님, 신문 좀 보고 와서 물어주십시오.”

옆에 앉아있던 계장(수사관) “사표를 낸 검사의 이름이 누구요?”

답변 “정보로는 으뜸가게 파고드는 성격으로 압력에는 굽히지 않는 당당한 공안부 실력검사 이용훈 부장검사입니다. 당시 공안부 검사 전원은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없다고, 검

사의 양심상 기소장에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하여 구류 만료일인 9월 5일 숙직검사 정명래로 하여금 기소케 하였으며, 그후 한옥신 검사가 재수사하여 본래의 적용법과 달리하여 반공법으로 기소했으나 1차에서도 두 피고를 제외하고 전원 무죄로 석방되었으나 2심에서 1년 또는 집행유예로 나온 사건입니다.”

수사관 “이용훈 검사가 정말 기소가치가 없다고 사표를 냈는지 어떻게 아느냐?”

답변 “이용훈 검사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수사관의 언성이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소리를 지르거나 지르지 않거나 관계없이 내가 죽는다 해도 인혁당이 조작된 것이라는 확신은 버릴 수 없습니다.”

수사관 “당신 남편이 인혁당 사건으로 10년 전에도 처벌받은 것 아느냐?”

답변 “인혁당으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도 걸리는 반공법에 저축이 되었다가 집행유예로 나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그 오랜 세월 착실히 살아왔는데(살인자도 10년이 지나면 문제삼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인혁당 재건이 무슨 당치않은 말입니까?”

수사관 “그렇다면 당신 남편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걸렸었느냐?”

답변 “나는 모르오. 허나 당시 세칭 인혁당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켰으나, 분명한 것은 한옥신 검사가 재수사하여 반공법으로 기소했으니, 그때의 판결문을 법원에 가서 보면 알 것이나, 보지 않고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칭 인혁당으로 벌을 받지 않

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남편 우홍선의 공판 기록을 보며 계속 부인한 기록을 읽어 내려가다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하는 대목이 나오자, “저는 이 대목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 “공판 기록이 거짓이란 말이요?”

답변 “나는 공판기록을 거짓이라고 하지 않았소. 다만 그 대목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기록을 검토하여 봅시다. 어느 모자라는 인간이 모두 부인하고, 잘못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한다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수사관 “이수병이 5차 당 기록 노트를 보고 반환했다는 대목을 기억하는가?”

답변 “생각납니다.”

수사관 “이수병이 노트를 보고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본래 나같이 소심한 인간은 어찌다 라디오 다이얼이 잘못 돌려져 이북방송이 나오더라도 질겁을 하고 꺼버릴 위인인데, 끔찍하게 왜 그런 것을 보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수사관 “그렇다면 이수병이같은 5차 당 기록 노트를 보고 돌려준 공산주의자를 남편이 만났는데 의심스럽지 않느냐?”

답변 “아니오. 절대로 의심스럽지 않소. 남편 우홍선은 이수병이 5차 당 노트를 봤는지 6차 당 노트를 봤는지 전혀 알아야 할 까닭도 없고, 만난 남편을 나는 절대로 의심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 “물론 이수병이 노트를 가지고 다닌 것도 아니고 하

니 모르고 만났다는 것은 인정하나, 이런 사람을 만났으니 내 아  
내가 만약 그랬다면 나는 의심한다.”

답변 “나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과 똑같은 대화를 두 서너번 되풀이 하다가 “길에 나  
가 행길을 막고 10명만 붙들고 물어보자”라고 제의하니, 옆에 앉  
아 있던 계장이 말을 거들려고 하기에 “아! 선생님도 이 선생님과  
같이밖에 생각할 수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하니 “아니, 그  
런 것이 아니라, 10명을 붙들고 물어본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  
이고...”

답변 “남편 우홍선은 인혁당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  
고, 소위 민청학련 사건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인혁당은 정보부  
원들이 조작한 것이고, 남편 우홍선은 어머님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며, 어머님은 장로교회 집사로 그 믿음이 착실하며, 남편  
은 소총소대장으로 당시 ‘오분간 소위’로(전쟁이 너무 치열하여  
전방에서는 오분밖에 생존하지 못하고 곧 죽는다는 말) 자기 목  
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슬기로운 장교를 죄가 만의 일이라도 있  
어도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일인데, 죄도 없는 사람을 공산주의자  
로 만들어서 죽이려 합니까? 또 소위 민청학련과 관계가 추후도  
없었기 때문에 당신들의 그 어마어마한 발표를 보고도 태연히 직  
장에서 일을 하다 연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군사법정에서 고문당하고 강제로 기소장에  
날인케 만든 사실을 폭로 열거하면서 “이곳이 몇 층입니까?” 하고

문자 “삼층입니다.”

답변 “이곳에서 남편이 당신들의 고문에 못 이겨 떨어져 죽고 싶었던 곳이군요. 수사관이 한마디도 남편이 간첩을 이복으로 보냈다는 공소사실을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미군 CIA에서 보낸 동아대학 교수였던 김상한을 우홍선이 보냈다고 만들었소?”

수사관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답변 “군사법정에서 김종길 변호사가 변론 및 증인이 되어주셨소. 김종길 변호사의 목이 몇이나 있어서 그런 어마어마한 말을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수사관 “법정에서 변호사의 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답변 “아! 그래서 강신옥 변호사는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았군요.”

다른 방에서 온 수사과장 “당신이 남편 구명운동을 한다고 떠들면 복귀가 떠든다. 또 이렇게 한다고 남편이 사는 길인 줄 아느냐?”

답변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의를 지키는데 부끄럼없이 최선을 다했소. 박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정보 6국장, 박현식 재판장 앞으로 내 정성을 다하여 호소문을 올렸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소. 하는 수 없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헤매이다 데모도 하고 호소문도 낭독하였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소? 그쪽이야 항상 떠든다는데 나같은 힘없는 아녀자 호소문 한번 낭독했다고 더 떠들고 덜 떠들고가 있소? 나는 아랑곳없이 무고한 남편 우홍선의 구명만을 위해



호소했으나 굳이 정부 시책이 그렇다면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협조하는 뜻에서 데모와 청중 앞에서 호소문 낭독만은 안하고 남편 구호운동만은 계속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의 부인이 와 앉아 있다고 보고 입장을 단 한번만 바꾸어 생각해 보시오. 나를 죄인 취급을 하다니, 내가 죄인이요?”

수사과장은 대답없이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사관 “목요기도회나 천주교회에 나가지 마시오. 나가려면 동네 교회에 나가시오.”

답변 “그것은 월권이요. 왜 국민을 구속하는 인상을 자초해서 받으려고 하오. 하나님의 말씀도 바르게 전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을 것이니 어디를 가든 그것은 내 자유요. 막지 마시오.”

그리고 계장실로 불러갔습니다.

계장 “악명높은 강순희 데려다놓고 보니 행동거지가 분명하고 예리하다. 당신 남편 구명운동은 이해한다. 제발 좀 당신은 가만히 있으시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탁하시오. 도와드리겠소. 악명높은 정보 6국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소.”

답변 “옛말에 개를 때려도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 놓고 때리라고 했는데 사형이 무엇이오? 너무하지 않았소. 너무 잔인하오.

왜 우리 세칭 인혁당에 묶인 가족들을 3, 4일씩 괴롭히고 구박을 하오?”(이수병씨의 아내 이정숙씨를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이년 저년하는 대우를 받았다는 말을 하였더니, 각서를 쓰라고 하여 사실대로 거리낌없이 써주었습니다)

인혁당이 조작당이라고 발언한 것이나 또한 남편에게 되집어 씌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관 자신들도 각서를 받을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였으며, 기도회에 못나가게 할 목적으로 각서를 쓰지 않으면 한 10일 있어야겠다고 하기에 올 때에는 무서워서 오지 않으려고 울었으나 이제 “온 이상 나가는게 문제가 아니오. 칫솔이나 하나 사다주소시오”하고 나올 때 마지막에 수사계장이 “아주머니 나가서의 일거일동을 아무리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인혁당이...”

답변 “(수사계장의 말을 가로막고) 마치 인혁당을 아무리 조작을 해도 만천하에 조작당이라고 알려지듯이 나의 행동도 당신들이 살살이 알게 되겠지요” 하고 응수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정보부에 강제로 연행되어갔던 일을 무척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랬듯이 전보다 더욱 세칭 인혁당은 정보부원들이 조작했다는 확신을 굳혔고, 남편 우홍선을 고문으로 강제로 공산주의자로 만들었다는 확신을 굳혔고, 남편 우홍선이 소위 민청학련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음을 더욱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정보 6국에 강제 연행되었던 48시간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